

2018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위)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
저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아래) 노재옥 지부장

7월부터 시작된 2018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이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조인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조인식에는 전남대 파업투쟁 진행으로 인해 나순자 위원장 대신 한미정 사무처장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노재옥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의료원은 이기형 의무부총장 및 김호용 사무국장과 각 부 팀장들이 자리했다. 노사 대표 인사말에서 한미정 사무처장은 “4년 만에 자율 타결을 하게 되어 무척 의미가 깊다.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하는데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하겠다. 노사 모두 고생하셨다.” 고 말했다. 이어 노재옥 지부장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놓쳤던 부분은 내년 교섭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 내년에는 주변의 병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맞게 교섭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측 대표인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올 해 조인식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처음 교섭을 해봤지만 진지한 분위기에서 노사관계의 개선과 희망을 봤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 부담이었는데 노동조합이 협의 해주신데 감사한다.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곧이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노사 대표위원이 날인했으며,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의 적용은 노사 조인식을 기점으로 발효되며 3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은 10월 25일 급여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 산별중앙교섭 조정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준수, 산별노사 공동기금 1억 조성 등 합의
민간중소병원 총액 3% 인상, 그 외 조정사업장은 노사 자율합의하기로**

보건의료노조는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44개 병원 노사에 적용되는 조정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준수 ▲산별노사 공동기금 1억원 조성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이다. 임금인상은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임금 총액 3%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의료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나머지 산별중앙교섭

참여 병원들의 경우 노사자율합의나 해당 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이미 합의한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 협약서에 따르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직의 경우 2017년 9월 18일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9월 10일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 용역직 정규직 전환

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7일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20일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조정 기간을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조정만료일인 13일 파업을 앞두고 조정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전남대병원지부 17년 만에 파업 돌입! 공공병원 중 유일하게 전면 파업 진행 중!



전남대병원지부가 9월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8일 넘게 힘찬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대부

분의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데 반해 전남대병원원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전남대병원은 국립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1등급, 52시간 상한제를 위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측은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선전물을 뿌리고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화순병원 중간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차단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며 부당노동행위와, 노노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지부는 18일(화) 전남대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남대 화순병원과 광주병원에서 진행되는 파업 일정에 참여했다.